



명품 집착



이경숙
취재2부장

최근 백화점들이 대대적인 바겐세일을 했는데 경기 탓인지 다른 매장들이 썰렁한 가운데도 외국의 유명 브랜드, 즉 '명품' 코너만은 '만원사재'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명품들의 가격이 세일한다고 우습게 봤다가는 큰코 다친다. 7백만원짜리 코트가 5백만원, 5백만원짜리 양복은 3백만원인데도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명품열은 엄청나다. 20대 젊은 여성이 핸드백 하나에 한달치가 넘는 월급을 털어넣기도 하고, 수백만원 코트 하나를 위해 카드를 겁없이 내린다. 명품을 사기 위한 '명품계'까지 유행이며, 중고 명품점, 명품아울렛 매장에 명품전당포까지 등장했다. 인터넷에도 중고명품 사이트만 100여개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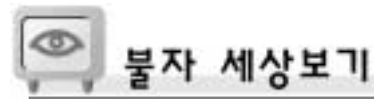
왜 이렇게 명품에 집착할까, 단순히 물건의 질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구치'나 '프라다' '버버리'나 하는 이름에 얽혀 자신이 마치 '귀족'이 된 듯한 허영심 때문이 아닐까. 비싼 명품을 걸치면 사람까지 달리 대우하는, 외모나 차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의 잘못된 풍조 탓도 크다. 확고한 자기중심이 없기에, 남의 시선과 맘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며 비싼 물건에 기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사회병'에 중독된 사람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명품'이란 말도 고쳐 불렀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수십년 외길을 걸은 장인(匠)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물건이야말로 진정한 '명품(名品)'이다. 장인들의 작품을 명품으로 부르고, 고가의 외국 브랜드 제품은 그냥 '고가품(高價品)' 또는 '사치품(奢侈品)'으로 부르자는 것인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월드컵이 안겨준 정신적 자산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대박의 꿈은 이루어진다"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해 연말에 새로 선보인 로또 복권에 어느 평범한 40대 가정이 국내 복권 사상 최고액인 65억 원에 당첨되어 우리에게 '대박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로또 신드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복권만이 아니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우리 나라 사행산업의 규모는 해마다 20~30%씩 고속 성장해 금년에는 무려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리만큼 사행산업은 변장 일로를 달리고 있다.

꿈은 아름답다. 그러나 꿈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꿈이 창조적 노력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창출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권이 카지노를 통한 대박의 꿈은 노동을 통한 삶의 의미 찾기가 아니라, 거꾸로 일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는 향락주의 인생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꿈은 아름답지 못하다. 아니 이런 꿈은 하나의 아편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권이란 꿈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첫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향락주의 문화 조장이다. 주택 건설, 스포츠 육성, 지자체 세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사행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언



김상득 교수
전북대 · 윤리학

노력하는 삶 좀먹는 '대박의 꿈'

론이 이를 대서특필함으로써 '나도 대박의 꿈' 심리를 조장하는 데 한 몫 거들고 있다.

둘째는 열심히 일해도 꿈을 이룰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다.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4강이 현실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돈 없이는 사회적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교유비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권리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경제적 여건 악화로 열심히 일해도 직장이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유일한 탈출구는 대박(기)밖에 없지 않는가? 65억 원 복권

당첨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애들 과외시킬 수 있겠네요"라고 한 말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셋째는 한국인들의 두 가지 잘못된 심리이다. 하나는 '설마'의 심리요, 다른 하나는 '혹시나'의 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설마' 하면서 안심하는 반면에 좋은 일에 대해서는 '혹시나' 하면서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다. 현재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 어른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기우뚱거리는 이유 역시 이러한 '혹시나'의 심리가 자리잡

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여건과 우리 국민의 '혹시나' 심리가 하나 되어 복권 문화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혹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헛된 기대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 그 반대로 줄어든다. 행복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의 경우, 행복을 얻기 위해 사랑하면 행복은커녕 그 사랑조차 지속되기 어렵다. 오히려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함에서 혹은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 않는가? 대박의 꿈과 향락주의로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2003년,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행복하려고 노력하기를 중단하면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작가 에디스 워튼의 말을 기억하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의 '근대 계몽 담론에서의 불교' 강연

왜 한국에선 근대와 기독교가 동일시되었는가?

경쟁 세력 형성 안된 상황서 '독립신문' 불교 공격 이끌어

우리 안의 일상적 폭력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온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가 6~11일 대학로 '수유연구실+연구공간 너머'에서 '박노자와 함께 하는 근대 계몽 탐사' 강좌를 열었다. 11일 마지막 강좌의 주제는 '근대 계몽 담론에서의 불교'. 강연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편집자주>

개항이후 한국 사회에는 '근대'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상당 부분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기독교가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근대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보면 반기독교 운동이 곧 민족주의를 확립해 가는 과정이었고 근대화였다.

일본에서 기독교와 근대의 동일화를 막았던 것은, 바로 민족주의와 결합한 불교라는 강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내셔널리즘 담론에 흡수돼 버린 일본 '어용' 불교는 '애국심'이란 논리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고 따돌리려고 했다. 국가와 유착돼 있던 일본 불교는 현실적으로도 기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기독교와 근대, 기독교와 문명개화가 일치감치 동일시되었을까? 서양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독교야말로 한국 근대 민족주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담론의 장에서 기독교와 경쟁할 수



<박노자 교수는 11일 대학로 '수유연구실+연구공간 너머'에서 '근대 계몽 담론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있는 세력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일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신채호, 김육균 같은 초기개화파들은 유교를 대신해 불교가 개화사상이 될 수 있을 않을까 하여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물론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불교=근대화'를 기대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한국에서 기독교가 근대와 동일시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서재필, 윤치호 같은 미국에서 공부한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귀국해 활동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독립신문>을 통해 불교가 전근대적이고 타파해야 할 구습이라고 공격하며 대신 기독교야말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논조는 <대한매일신보>도 마찬가지였다.

즉, 초기 개화기 신문들이 기독교를 '부강의 힘'으로 선전했고 이것이 점차 지배적 담론이 돼 버린 것이다.

개화기 신문들의 이 같은 공격에 한국 불교는 제대로 반격을 못했다. 한용운 스님 한 분만이 제대로 된 반격을 했으나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격을 볼 수 없다.

독자 투고

이종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회사원)

'석탄일' 아닌 '부처님 오신날'로

음력 4월 8일의 정확한 명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5939호)'에 의해 '석가탄신일'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봉축위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하도록 권장해 왔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중적이지는 못해 비불교인이나 일반 언론, 달력, 다이어리 등에서는 '석가탄신일'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음력 4월 8일에 대한 명칭을 공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불교계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한다. 봉축행사 시에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해 달라는 권장은 하고 있으

공식발표, 개정 노력, 대중인식 필요

나, 공식적인 발표라 할 수는 없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종단대표들의 결의하에 "음력 4월 8일에 대한 명칭을 '부처님 오신 날'로 한다"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명칭은 법적인 보호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식발표 이후 '관공서...'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양력 12월 25일이 규정에는 '기독교탄신일'이나 대중적으로는 '성탄절'이라 표현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의 개정과 관계없이 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국의 교구본사나 청년단체들이 나서서 달력이나 다이어리 등을 제작하는 업체, 언론기관에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어린이 돕기 릴레이 메일



북한 어린이 400만 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다 죽게 되었다는 방송이 나온 후 북한 어린이를 살리자는 릴레이 메일이 시작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불교포럼에서 시작한 릴레이 메일은 메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형식을 띄고 있다. 또 불교계 대북지원 창구인 좋은벗들(02-587-8996)이나 평불협(02-735-5558)의 전화번호, 후원계좌 등을 담고 있다.

강군육매

15% 사찰만 어린이·청소년 법회 열어



조계종 포교원 황찬의 포교과장은 지난 1월 14~16일 2002학년도 전국교법사단 연수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종단의 청소년 포교정책'이라는 논문에서 조계종 사찰 가운데 15% 정도만이 어린이, 학생 청년법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사찰과 종단 등 모든 사부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